대 한 국 제 법 학 회

THE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수신 : 대한국제법학회원님
제목 : 강병근 학회장 취임인사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취임 인사말

학회원 여러분 2023년 새해를 잘 맞이하셨습니까? 먼저 오늘 정년기념논문집을 받으신 박기갑 명예이사님께 축하드리며, 공로상을 받으신 김부찬 명예이사님, 현민국제법학술상을 받으신 소병천 이사님, 공로패를 받으신 이근관 이사님께도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2년 집행부를 이끌었던 이용호 회장님 그리고 집행부 이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 몇 년간 COVID19 전염병을 통해서 전세계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 2월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엔 체제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같은 초강대국이 직접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겼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전쟁 가능성이 현실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북한이 대치하는 한반도에서 우리나라도 현실세계에서나 가상공간에서 전쟁에 대비하고, 무인기를 활용하여 적을 타격하는 방법을 익혀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역 장벽을 높이 쌓거나 타국을 침략하면서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국제법의 중요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법과 정책을 혼용하고 있고, 특히 데이타에 기반한 현 사회에서

국제법 문제는 국가들의 물리적 경계가 없는 가상세계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법 학도들은 현행법의 규범 해석과 새로운 법의 생성을 위한 정책변화를 동시에 가늠해야만 국제법관련 국내외 문제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2023년 대한국제법학회의 학회장으로서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한국제법학회는 1953년 6월 16일에 창립총회를 열었습니다. 35년전 석사과정 조교로서 대한적십자사 강당에 심부름 갔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올 해 학회는 창립 7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집행부는 오는 6월 16일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재작년부터 준비해 온 학회 창립 70주년 행사를 잘 수행하겠습니다. 작년 집행부에서 구성한 '70주년 준비위원회'(위원장: 정인섭 명예이사)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은 매년 집행부에서 적절한 기록을 남겨야 나중에 그 기록을 바탕으로 중요한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학회차원에서 학회 관련 기록을 정리하는 틀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제법의 영역이 매우 넓어지면서 주제도 다양해졌습니다. 이에 맞추어 학회원 각자의 국제법 전문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의 모든 학문 분야에서 어떻게 다양한 학문들이 융합할 수 있을지가 매우 큰 관심 사항입니다. 학회에서는 국제법과 다른 학문, 즉, 인문학, 사회과학, 공학 분야와 융합적 접근방법을 적절히 활용하는 사업을 구상하여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셋째, 우리나라 인구의 빠른 고령화 추세의 영향인지 우리 학회 구성원들도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수준에서 장차 학회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실 젊은 회원분들을 적극 유치하는 것은 학회의 생존을 위한 사항입니다. 석박사 과정 이상의 젊은 학회원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넓히고 필요하다면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겠습니다.

넷째, 학회 재정을 감안해서 지속가능한 학회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학회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학회원 여러분들

이 납부해 주신 학회비와 기부금은 학회운영의 생명줄입니다. 또한 우리 학회와 대한민국의 국제법 발전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는 정부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그리고 독지가의 관심과 후원도 매우 중요합니다. 2023년 집행부에서는 학회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좋은 결실을 거두겠습니다. 이 점에서 학회원 여러분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2023년에는 우리 학회의 활동을 널리 홍보하는 사업을 더 많이 수행하겠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실무법조계와 좀 더 긴밀한 관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실무법조인들이 원하는 국제법특별과정도 학회 차원이나 아니면 협력 기관을 통해서 시도하겠습니다. 또한 국제법에 관심 있는 대학생이나 외국어고와 국제고 재학생들이 국제법에 관심을 갖도록 국제법 논문 작성이나 국제법 강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행사도 확대하겠습니다. 국제적으로는 그동안 소원했던 외국의 국제법학계와 교류를 증진하겠습니다. 우리 학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던 일본이나 중국의 국제법 학회와 교류를 우선적으로 시도하겠습니다.

2023년 학회운영과 관련해서 수고해 주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수석부회장은 김민서이사입니다. 부회장은 김성원, 이기범 이사입니다. 직무이사들은 오선영 총무이사, 김상걸 연구이사, 박미경 출판이사, 김효권 국제이사, 장석영 학술이사, 임예준 기획이사입니다. 아울러 이경은 사무국장이 학회 관련 행사 및 각종 서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저희들 2023년 집행부가 학회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계묘년 설 명절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고, 올해 학회 행사 때 다시 뵙겠습니다.

2023년 1월 13일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강병근 올림